

국가데이터처, “지표누리” 서비스 재개

국가데이터처(처장 안형준)는 10월 10일(금) 제7차 위기 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통계서비스의 복구 상황 및 통계 4이용 관련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.

추석 명절 연휴 동안 복구(10.8.)한 ‘지표누리’ 시스템이 현재 서비스 중으로, 부문별 경제·사회 변화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표를 모아 구축한 총 6종* 지표 체계에 따른 통계 수치가 제공되고 있다.

* 한국의 사회지표, e-나라지표, 국민 삶의 질 지표, 저출생 통계지표, 지속가능발전지표(SDG) 등

또한, ‘국가데이터처 대표 누리집(홈페이지)’을 일부 복구하여, 가장 최근의 보도자료, 조직도, 주요 업무 대표 연락처 등을 임시로 안내 중이다. 해당 정보는 누리소통망(블로그,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X 등)을 통해서도 적극 알리고 있다.

국가데이터처는 10월 10일 현재,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시스템 16개 중 통계분류포털,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(MDIS), 통계데이터센터(SDC) 등 총 9개가 정상 운영되어 56%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.

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“전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복구되기까지, 친절한 민원 응대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할 것”을 당부하는 한편, 특히 “현장 안전관리와 보안 강화를 위한 체계 확립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의 철저한 재점검”을 주문하였다.

담당 부서	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	책임자	과 장	이진석 (042-481-2584)
		담당자	사무관	이희천 (042-481-2128)